인공지능 인재의 산실 '광주 AI영재고' 설립 속도 낸다

설계비 31억7500만원 국비 확보…연내 착수·2027년 개교 목표
윤 대통령 적극 지원 약속…설계·교육과정·학생 선발 등 절차 추진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산실 '광주AI영재고등학교'의 설립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 약속 등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등을 만나 AI영재고 설립에 힘을 보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기로 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인접한 북구 첨단3지구 인공지능(AI)집적단지 바로 옆 부지(오룡동 468일원)에 건축연면적 2만40㎡,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학습연구동과 기숙사동 2개동 등을 갖춘 광주AI영재고등학교를 건립하고, 2027년 개교할 계획이다.

연간 50명, 총 150명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며 학점제·무학년제, AI 특화교육과 GIST 연계·협력 프로그램, 학교장 자율 특성화 교육 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GIST 부설로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달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대선과 2022년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하면서, 설립 사업이 한층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광주AI영재학교 설립이 대통령 지역공약 반영 등을 통해 공론화된 이후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AI 영재고 설립 설계비로 국비 31억75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까지 냈지만, 설립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협의가 안 된 데다 2025년 국가예산에 건축비마저 반영되지 않으면서 '설계착수' 마저도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따라 재정 당국과 재정 협의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2024~2026년 학교 설계 및 공사, 교육과정 개발, 교직원·학생 선발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밟아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7년 3월 개교할 수 있도록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하철 공사 '복공판 철거' 뻥 뚫린 상무중앙로

19일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사구간인 서구 상무중앙로 일부구간의 복공판이 철거돼 본래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장성에 건립

영농교육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50억 투입…2025년 완공 계획

전남도가 이론과 실습, 지역사회 화합 등 체계적 영농교육을 통해 귀농 시행착오 최소화와 귀농귀촌인 유입 확대 효과가 있는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2024년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에 장성군을 선정했다.

전남도는 구례, 고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등 6개 시·군에 전국 최다인 7개의 체류형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도내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693명 중 443명이 전남에 정착하는 등 전입률이 64%에 달해 신규 농업인력 유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장성 북이면은 호남고속도로, 국도 1호선, 국도 24호선, 담양~고창 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유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도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고, 장성군에 설립 중인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와 연계해 귀농귀촌 성공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돼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영농기술에 필요한 이론교육은 물론 작물 재배에 대한 실습 등을 지원하는 영농복합 교육시설이다. 예비 귀농인이 6개월 정도 센터에 마련된 숙박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별 선도농업인 등과 연계해 과수, 채소 등 특화품목 재배에 따른 전문지식을 전수하고, 인근 마을 주민과의 화합을 조성해 농촌생활과 지역사회 정보를 사전에 공유함으로써 향후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조성할 체류형 지원센터는 부지 면적 8360㎡ 규모에 도비 25억원을 포함한 50억 원을 투입해 공동생활형 체류시설, 영농교육관, 실습농장, 스마트팜,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을 갖출 예정이다. 연내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12월까지 시설을 완공한 후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귀농귀촌인 유치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라며 "체류형 지원센터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이주를 장려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전남 친환경 연안 선박 클러스터로 '녹색해운항로' 구축 선도

탄소중립 선박 기술 등 신규 국고 2건…조선업 신성장 동력 마련

목포 남항 일대에 친환경 연안 선박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이 일대는 해상운송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로 지정되며,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 개발 등 관련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는 19일 "목포 남항 일대에 구축 중인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및 연관사업 국비를 확보, 대한민국 탄소중립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을 통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해 2025년 신규 국고 사업 2건 597억원(국비 497억원)을 확보했다. 국비 반영 사업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선박 연료 공급기술 개발 및 국제협력 기반 조성 299억 원(전액 국비) ▲친환경 연료 화재폭발 안전성 평가 및 대응설비 개발 298억원(국비 198억원)이다.

녹색해운항로는 해상 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로, 무탄소 연료나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다. 최근 국제 해운 및 조선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정부 역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해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친환경 연료공급 실증, 표준화된 공급 절차와 안전지침 마련 등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발맞춰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2020~2024) ▲친환경 대체연료 실증기술 개발(2021~2025)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2022~2026) ▲친환경 선박용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2022~2031) 등 4건 156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기추진 차도선 개발 사업의 경우 2022년 전기추진선 진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3년 6월부터 실증 운항을 시작해 국내 최초로 순수 전기 추진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남도는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충전시험동, 관제유지보수시험동, 친환경연료연구동, 국제협력 및 복지동, 전력시험동 등 육상 연구지원 기반 구축도 2026년 상반기 마무리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산업기계 6개 기업 중동-남아시아 진출 청신호

리야드-다카 시장개척단, 상담회 통해 핵심 제품 등 소개

전남도가 코트라(KOTRA) 광주전남지원단과 함께 '2024 산업기계 리야드-다카 시장개척단'을 지난 13일까지 6일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시장개척단은 전남을 대표하는 산업기계 6개 기업이 참가해 중동과 남아시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했다.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수출 상담회에는 아람코, 사비 등 35개 현지 바이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으며, 70건의 상담을 통해 1102만5000달러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참가 기업은 각자의 핵심 제품인 산업용 밸브, 신축이음관, 태양열 집열 시스템, 정밀화학 제품, 단열재, 볼팅 장비 등을 소개하며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두식 코트라 리야드 무역관장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을 중심으로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며 "건설, 인프라,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11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는 현지 조달 관계자와 바이어를 초청한 기술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총 43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4110만7000달러의 상담액을 기록했다. 페어 그룹(Fair Group), 월튼 그룹, HNS 그룹 등 방글라데시 주요 기업이 참석해 한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